

#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 전통의 충돌

-요세푸스의 칼리굴라 위기 보도를 중심으로-

박찬웅\*

## 1. 서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은 신학과 역사학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sup>1)</sup> 요세푸스의 작품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신학과 역사학의 폭과 깊이는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특히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는 소위 신, 구약 중간기 시대 이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sup>2)</sup>

요세푸스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는 훌륭한 귀족 계층 출신이다.<sup>3)</sup> 그의 부계(父系) 혈통은 제사장 가문에 속하는데, 24반차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속하므로, 그의 표현에 의하면 “제사장 가문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월하고 구별된 집안”에서 피를 물려받았다.<sup>4)</sup> 그의 모친은 하스

---

\* 하이델베르그대학교 박사, 신약학, 은혜복음교회 목사

- 1) 요세푸스의 작품은 4개로 알려져 있다. 『유대 전쟁사』 (bell.), 『유대 고대사』 (ant.), 『아피온 반박문』 (c. ap.), 『요세푸스 자서전』 (vita).
- 2) T. Keim, *Aus dem Urchristentum I* (Zürich: Mohr Siebeck, 1978), 1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기록은 “제5복음서”이다. 또한 요세푸스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M. Hengel, “Zeloten und Sikarier. Zur Frage nach der Einheit und Vielfalt der jüdischen Befreiungsbewegung 6-74 nach Christus,” O. Betz, et al., eds., *Josephus Studien. Untersuchungen zu Josephus, dem antiken Judentum und dem Neuen Testament*, Festschrift für O. Miche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4), 175를 참조하라.
- 3) 요세푸스의 삶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I,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 명저 번역총서 226, 박찬웅, 공역 (서울: 나남, 2008);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옮긴이 해제,” 『유대 전쟁사』, 636-647.

문 왕족 출신이며, 요세푸스의 부모 이전 세대에도 조상들은 하스몬 왕족의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형성했다. 따라서 그의 태생은 제사장 가문과 왕족 가문을 기반으로 하는 상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요세푸스는 자신의 성장기가 학문적, 사상적 관심으로 가득 찬 시기였다고 강조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탁월한 지적(知的) 통찰력의 소유자라고 암시한다.<sup>5)</sup> 인생의 일대 전환점이 된 유대-로마 전쟁에서 그는 갈릴리의 지휘관으로 발탁된다. 66년 겨울부터 67년 여름까지 그는 갈릴리에서 베스파시아누스의 로마군과 대치했지만, 결국 갈릴리 북서부 요타파타 성에서 패배하고 만다. 로마군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47일 동안 버텼지만, 결국 생포되어 로마 지휘관 베스파시아누스 앞에 끌려간다. 이 때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을 예언하여 플라비아누스 가문의 총애를 받게 되는 계기를 만든다.<sup>6)</sup> 베스파시아누스가 비텔리우스를 몰아내고 황제로 등극한 후,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 반란군의 항복을 설득한다. 그 설득은 실패로 끝났으며 결국 예루살렘은 티투스가 파멸시킨다.

요세푸스는 전쟁 이후 로마 황실의 보호 아래 특권적 삶을 살았지만, 그와 동시에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생애를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반군 지휘관에서 로마군 지지자로 정체가 뒤바뀐 상황,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목도한 참담한 경험, 가해자의 편에서 역사를 기술해야 하는 심적인 부담감, 이 모든 것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심적

---

4) 요세푸스, 『요세푸스 자서전』, 2. 역대하 24:1-19(특히 7-18절)를 참조하면 요세푸스의 집안은 여호야립 가문에 속한다.  
 5) 요세푸스, 『요세푸스 자서전』, 7-12에 따르면, 그는 16세의 나이에 이미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파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옛세네파의 수련 과정을 모두 마쳤고, 이들 종파와는 다른 기행적이고 금욕적인 문화를 대표하는 ‘바누스’의 제자로 3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언급한다.  
 6)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3:400-402 참조. 또한 수에토니우스, 『베스파시아누스의 생애』 4-5; 디오 카시우스, 『역사』, 65.1.4에도 이러한 예언에 대한 증거가 남아 있다.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헬라적 유대교 문화권에 있었던 요세푸스는 오랜 헬레니즘 문화의 물결 속에서 유대교 전통이 적응,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때때로 심각한 충돌과 위기의 국면을 맞는 것이 불가피함을 목도한 인물이다. 성도(聖都)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현장을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목격한 자로서, 요세푸스는 그러한 참담한 결과가 결국은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 전통의 필연적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암시한다.

1세기 유대인의 역사에서 70년 성전 멸망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면, 그보다 앞선 40년경에 발생한 칼리굴라의 위기는 70년 성전 멸망을 예견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유대 전통이 로마가 표방하는 헬라 문화에 의해 언제든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닫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요세푸스는 거대한 주도적 문화의 확장은 불가피한 것이며, 문화의 바탕과 원리가 이질적인 한, 주도적 문화(헬레니즘)와 지역적 문화(유대교)의 충돌 또한 불가피한 현상인 것을 알았다. 본 연구는 헬라화의 과정, 즉 문화적 조우의 필연적 귀결로 ‘칼리굴라 위기’를 이해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70년 성전 멸망 사태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칼리굴라 위기가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요세푸스는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 전통의 충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

---

7) 참조,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I, 634-635: “요세푸스라는 인물은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편견과 오해의 주인공으로 남아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조국을 배신하고 로마에 충성한 변절자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히듯이, 자신의 그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넘어서 이른바 ‘역사’(historia)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했던 일종의 사명감을 자신의 엘리트적 자의식으로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국제 정세와 다문화적 헬레니즘의 사상적 특징과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지식인이다. 그러므로 그의 눈은 고도의 사상과 논쟁을 소화하고 있고, 그의 저작 전체에는 그의 철학과 역사관, 수사학이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요세푸스의 저작은 단순한 신약 성서의 배경사의 보조 자료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대의 문헌을 다루는 방법론과 해석학을 통해 진지하게 이해되어야 할 헬레니즘 시대 유대교 문헌 가운데, 역사라는 장르로 연구되어야 할 귀중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 2. 팔레스타인 내외적인 상황: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 전통의 만남<sup>8)</sup>

유대교 사회는 제2성전기에 들어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진출로 유대인들은 새로운 지배자 헬라 제국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sup>9)</sup> 이를 통해 유대인들은 월등한 문화적, 경제적, 군사적 힘에 직면한다. 알렉산더 사후 이집트 프톨레메우스 왕조의 지배에 이어 시리아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된 유대교 사회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한층 더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다. 그는 헬라 문화의 강력한 전파 정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스 성소에 제우스의 제단을 쌓아 제사를 거행하게 하고 할례를 금지했으며 유대인의 절기도 금지하고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다. 이렇듯 안티오쿠스는 유대인의 신앙적 유산을 말살하는 헬라화 정책을 강요했다.

헬레니즘 문화의 유입에 직면한 유대인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가령 안티오쿠스 시대의 아손과 메넬라우스와 같은 상류층 인사들은 유대교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던 반면, 마카베우스 가문은 강력한 보수주의적 노선을 취했다. 또한 하스몬 왕조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난 자들은 이집트 망명지(Leontopolis)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거나(오니아스), 속세를 떠나 수도원 공동체를 건설하여 그 공동체를 대안 성전급으로 간주하기도 했다(쿰란-에세네파).

이 모든 현상들은 근본적으로 헬레니즘 문화의 유입에 직면하여

---

8) 헬레니즘 문화가 팔레스타인에 미친 문화적 영향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M. Hengel, *Judentum und Hellenismus. Studien zu ihrer Begegn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Palästinas bis zur Mitte des 2. Jh.s v. Chr.*, WUNT 10 (Tübingen: Mohr Siebeck, <sup>1</sup>1969, <sup>3</sup>1988), 108-198.

9) 이하의 서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박찬웅, “원시 그리스도교 사상 형성과 유대/로마 세계의 상호성에 대한 사회사적 연구,” 『신약논단』 8 (2001), 187-223.

발생한 것들이며, 유대 사회는 싫든 좋든 이방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로마의 등장은 헬레니즘 문화의 유입을 가속화했다. 타문화에 대한 로마의 기본적 관용성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헬레니즘 정책은 유대 사회의 대응을 끊임없이 (본의 아니게) 요청했다. 칼리굴라 위기 발생 직전의 팔레스타인의 내외적 상황도 평온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이 그 상황을 입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 2.1. 파르티아의 상황

동방의 파르티아 왕국과 로마의 갈등 관계는 당시 중요한 팔레스틴 외부 국제정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페트로니우스의 선임인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35-39년)는 파르티아 왕 아르타바노스(Artabanos)를 견제하기 위해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 파송되었다. 아르타바노스 왕이 얼마 전 아르메니아를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는 그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아르타바노스는 비텔리우스에 의해 쫓겨났지만,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은 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유프라테스 강의 다리 위에서 비텔리우스와 그는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냈는데, 이 당시에 안티파스가 배석했다.<sup>11)</sup>

### 2.2. 나바태의 상황

안티파스는 장인인 아라비아 나바태 왕국의 아레타스 4세와 충돌했

10) 이하의 분석은 다음 연구를 중요한 토대로 삼았다. Gerd Theissen, *Lokalkolorit und Zeitgeschichte in den Evangelien: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NTOA 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146-161.

11)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101ff.

다. 갈등의 빌미는 안티파스가 제공했다. 안티파스는 베레아 지역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접한 나바테 왕국과 정략결혼에 성공했는데, 로마에서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이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남편 안티파스의 외도 소식을 들은 아레타스 4세의 공주는 본국으로 가버렸고, 이 파혼의 결과 안티파스와 나바테의 전쟁이 발발했다(36년). 로마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르티아와의 갈등으로 안티파스가 처한 곤란한 상황을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 인접한 분봉 왕국의 형제 빌립도 얼마 전, 34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안티파스를 지원할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대패했다. 이후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가 아레타스를 응징하려고 했지만, 이 응징 계획이 실현될 수 없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들에 의해서였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대가 유대 땅을 통과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기 때문인데, 로마 군대가 이동할 때는 형상이 그려진 깃발이 동반된다는 이유에서였다.<sup>12)</sup>

### 2.3. 혼란스러운 팔레스타인 내부 상황

이렇게 팔레스타인 외부 동방 지역에서 혼란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어려운 형편이 전개되고 있었다. 36년경, 사마리아에서는 익명의 한 예언자가 출현했는데, 그는 그리심 산으로 민중을 이끌어 숨겨진 모세의 유물들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사람들을 현혹했다. 총독 빌라도는 이 예언자 운동을 중지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잔혹하게 제압했다는 이유로 비텔리우스는 빌라도를 총독직에서 몰아내고 로마로 추방했다.<sup>13)</sup>

한편 유대 지역에서도 종교적으로 예민한 일들이 벌어졌다. 비텔리우스가 나바테 왕을 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퇴각하는 가운데, 로마

---

12)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9:120ff.

13)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85-89.

군대가 예루살렘을 통과하려고 하자, 유대인들은 이방 군대가 거룩한 땅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거부했다. 결국 비텔리우스는 자기 군대와 분리되어 홀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안티파스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보냈다(37년 4월 20일). 이때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대체사장 예복을 넘겨받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sup>14)</sup>

이렇게 볼 때,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공통된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모두 각각 자기 문화의 고유한 유산, 특히 예식과 관련된 것들(모세의 유물, 대체사장 예복)이 자기 관할권에 들어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사마리아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이방인 빌라도가 추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 지역에서도 이방인 로마 군대가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 2.4. 아그립바 1세의 상황

헤롯 가문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이었는데, 이 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갈등을 빚는다.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력을 발휘한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정계에 급부상하던 아그립바 1세를 견제할 필요를 느꼈다. 39년, 안티파스는 로마에서 아버지 헤롯 대왕에 버금가는 왕위를 요구하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아그립바 1세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칼리굴라에게 폐위되는 수모를 당한다. 반면 아그립바 1세는 승승장구한다. 왕위(basileus)를 받은 그는 41-44년 기간 동안에는 유대 지역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였다.

14)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90-95; 참조, 15:405.

### 3. 칼리굴라 위기의 전개 과정

칼리굴라 위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요세푸스와 필로의 자료에 담겨 있다. 각 자료의 보도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2:184-203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261-309	필로, 『가이우스에게 간 사절단』, 197-337
[원인] 1. 칼리굴라의 자기신격화	[원인] 1. 칼리굴라의 자기신격화 2. 알렉산드리아 유대 사절단에 대한 칼리굴라의 진노	[원인] 1. 칼리굴라의 자기신격화 2. 유대인들이 암니아의 황제 제단을 파괴함 3. 반 유대주의자의 조연
[위기의 시작] 1.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 2. 3개 군단 파견, 황제의 상들(복수)을 예루살렘에 세울 것 3. 저항 시, 살해, 노예화 명령 4. 전쟁의 소문이 퍼짐.	[위기의 시작] 1. 비텔리우스 후임으로 페트로니우스가 (로마에서) 시리아로 파송됨. 2. 2개 군단 파견, 황제의 상 하나를 예루살렘에 세울 것.	[위기의 시작] 1.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 2. 유프라테스 주둔군 절반(2개 군단) 파견, 황제의 상 하나를 예루살렘에 세울 것. 3. 페트로니우스는 사전에 미리 알고 있음.
[1차 협상: 페니키아] 1. 유대인들은 여자, 아이들과 함께 프톨레메스로 와서 페트로니우스에게 철회 간청. 2. 의견 수용하여 페트로니우스 홀로 티베리아로 감.	[1차 협상: 페니키아] 1. 페트로니우스는 프톨레메스로 가서 이동해 겨울을 나고 새해에 전쟁 시작 계획(직후 황제와 주고받은 편지 통해 칭찬을 받음). 2. 유대인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면서 유대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도 버릴 것이라며 철회 간청(하나님은 황제보다 위대하다).	[페니키아 협상] 1. 페트로니우스는 시돈에서 상을 제작함(시간을 지연하기 위한 조치). 2. 유대인 지도자들과 협상. 3. 유대인들은 여자, 아이들과 함께 연기를 요청. 4. 황제에게 서신을 보냄. 황제의 답신은 중립적 입장. 5. 시가: 추수기(연초).
[2차 협상: 티베리아] 페트로니우스는 유대 백성과 지도자들을 티베리아로 소집.	[2차 협상: 티베리아] 페트로니우스는 친지와 시종들과 함께 티베리아로 이동. 1. 40일간 파종이 지체됨(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신의 충성심과 수난 감수를 강조.</li> <li>2. 지도자들과 백성과 따로 따로 협상을 진행.</li> <li>3. 양보의 근거: 50일간 파종이 지체됨(가을, 10/11월).</li> <li>5. 군대를 이끌고 안디옥으로 돌아옴. 황제에게 서신 보내 명령 철회를 요청.</li> </ol>	<p>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헤롯 가문과 귀족들과 협상: 저항 운동 발생, 세금 수입 문제, 강도때 증가 우려.</li> <li>3. 페트로니우스 연설: 하나님은 인간보다 위대하심!</li> <li>4. 기적적인 많은 바: 1년 이상의 가뭄 이후.</li> <li>5. 황제에게 서신 보내 명령 철회를 요청.</li> </ol>	
	<p>[아그립바 1세의 역할: 로마 연회를 베풀어 소원을 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황제를 설득함.</p>	<p>[아그립바 1세의 역할: 로마] 아그립바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로마에 도착. 소식을 듣고 놀라서 정신을 잃음. 병석에서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 청원함.</p>
<p>[해결] 칼리굴라는 편지를 통해 페트로니우스의 자결을 명령함. 편지 도착 전에 황제가 암살되고, 편지는 27일 후에 도착.</p>	<p>[해결] 칼리굴라는 조건부로 명령을 철회함. 아직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철회를 명함. 페트로니우스는 자결을 명령 받았지만, 칼리굴라의 죽음 소식이 먼저 도착함.</p>	<p>[해결] 칼리굴라는 조건부로 명령을 철회함. 페트로니우스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예루살렘 이외의 장소에서는 황제 제의가 수행되어야 함. 칼리굴라는 이후 직접 예루살렘으로 상을 가져갈 계획.</p>

### 3.1. 칼리굴라 위기의 원인

요세푸스의 두 자료와 필로의 보도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통적 원인은 칼리굴라 황제의 자기 신격화가 결정적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상’(像)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안드리아스’(andrias)로 인간을 신으로 묘사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필로의 보도에 드러나는 독특성은 유대인들이 새로 세워진 암니아 황제 제단을 파괴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요세푸스는 언급하지 않고 필로만 언급한다. 총독 카피토(Herennius Capito)가 이 사실을

과장된 어조로 로마에 보고했고, 황제는 반-유대적인 성향의 유대인들의 견해에 의지하여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에게 중대한 명령을 내렸다. 칼리굴라는 자기를 묘사한 상 한 개를 예루살렘에 세우도록 명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무력 동원도 허가했다.<sup>15)</sup> 사건이 터지자 필로는 유대인 편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에 따르면, 암니아에 제단을 세운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도발을 한 행위로 볼 수 있고, 그것을 파괴한 것은 가증스러운 침해에 대한 응징이었다.

필로와는 달리 요세푸스는 암니아 사태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다. 대신 필로가 인솔하여 칼리굴라를 방문한 3명의<sup>16)</sup>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사절단이 이 로마 방문에서 칼리굴라와 갈등을 빚은 것을 간접적인 배경으로 암시한다.<sup>17)</sup>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이집트 프톨레메우스 왕조와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알렉산드리아 시민권을 보장 받았는데, 칼리굴라의 집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칼리굴라 황제가 왕으로 임명된 아그립바 1세가 38년에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은 열렬하게 그를 환영했으나 헬라인들은 그를 조롱하며 “마린”(marin)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아람어로 “우리 주님”이란 뜻이다. 헬라인들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아주 빈궁한 상태로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던 아그립바 1세를 놀렸던 것이다. 이 일을 두고 칼리굴라 황제가 불쾌하게 여길까봐 헬라인들은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 방법을 생각해 냈는데, 모든 회당 안에 칼리굴라의 상을 세워 그를 예배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총독 플라쿠스(Flaccus)는 헬라인의 입장을 지지했고, 유대인들을 시민권자가 아닌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그 직후 유대인 학살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필로는 사절단을 이끌고 칼리굴라를 만나러 로마로 갔다.

요세푸스는 필로가 보도하는 이 사건을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15) 필로, 『가이우스에게 간 사절단』, 200-207.

16) 요세푸스는 사절단을 3명으로 보도하지만, 필로 자신에 의하면, 그 수는 5명이었다. 필로, 『가이우스에게 간 사절단』, 370 참조.

17)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257-260.

들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간략하게 기록한다.<sup>18)</sup> 사절단 가운데 아피온(Apion)은<sup>19)</sup> 모든 민족이 제단과 신전을 통해 칼리굴라 황제를 존경하고 있지만 오직 유대인만 이를 거부하고 황제를 무시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필로는 이에 대한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심한 모욕을 당하고 나와서, 동행한 유대인들에게 칼리굴라가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건에 분개한 칼리굴라는 페트로니우스를 시리아 총독으로 임명하고(이전 총독은 비텔리우스였다) 예루살렘에 자신의 상한 개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또한 만일 유대인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요세푸스에 기록된 사절단 사건을 필로는 기록하지 않는데, 만일 요세푸스의 보도가 정확하다면, 필로가 기록을 누락한 이유는 아마도 필로 자신의 외교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예루살렘에서의 칼리굴라 위기가 발생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sup>20)</sup>

요세푸스와 필로의 공통점은 칼리굴라 위기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에서 출발했다고 밝히는 점이다(요세푸스는 이방 지역 알렉산드리아에서의 위기를, 필로는 팔레스타인 내부의 암니아에서의 위기를 각각 강조한다). 암니아에서 발생한 제단 파괴 사건은, 모든 회당에 칼리굴라 상을 세우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생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갈등 직후에 벌어졌다.<sup>21)</sup>

유대인들은 갑작스런 경험을 하게 된다. 유대 전통으로서는 타협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헬라 문화의 강요로 정체성 유지가 위태로운 사태가 여러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자신들의 종교가 근본적으로 위협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선은 팔레스타인 외부 이방 세계에서

18)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257.

19) 반(反) 유대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아피온은 요세푸스의 『아피온 반박문』에 자세히 나온다.

20) G. Theissen, *Lokalkolorit und Zeitgeschichte*, 153.

21) 필로, 『플라쿠스』, 41ff.

위협이 발생하고, 그 직후 황제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더 큰 위협에 봉착했다.

물론 로마의 시각에서는 알렉산드리아와 암니아 사태가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였을 것이다.<sup>22)</sup> 유대인들이 암니아의 제단을 파손한 행위를,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유대 문화에 대해 전통적으로 취해왔던 관용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았을 것이다. 가령 빌데(Per Bilde)는 예루살렘에 상을 세우려고 한 칼리굴라의 결정을 한 독재자의 경솔한 행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암니아에서 행한 유대인들의 행동을 로마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태도이자 로마의 관용 정책을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한 “합리적인 해석”에 입각한 것이라고 본다.<sup>23)</sup> 예루살렘에 자신의 상을 세우기로 한 칼리굴라의 결정이 암니아 사태에 대한 카피토 총독의 과장된 보고를 기초로 했다면, 로마의 입장에서 그러한 결정은 납득할 만한 것이다. 물론 칼리굴라가 자기신격화를 시도하지 않았으면 아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의 결정이 정치적 실책에 가깝다는 점은 분명하다. 기록자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자면, 요세푸스와 필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칼리굴라의 자기신격화를 갈등의 유일한 원인으로 묘사했지만, 사실은 칼리굴라 위기는 황제 개인의 실정 때문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의 오랜 상호 접촉의 결과로 누적되어 온 갈등의 필연적 표출로 볼 수 있다.

### 3.2. 칼리굴라 위기의 시작

칼리굴라가 예루살렘에 자신의 상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려 위기는

22) E. M. Smallwood, ed., *Philonis Alexandrini: Legatio ad Gaium* (Leiden: E. J. Brill, 1961), 264.

23) P. Bilde, *Josefus som historieskriver* (Kopenhagen: G. E. C. Gad, 1983), 69f. G. Theissen, *Lokalkolorit und Zeitgeschichte*, 154에서 재인용.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필로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는 칼리굴라가 39년 이후 시리아 총독으로 있던 페트로니우스에게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일치되게 보도한다. 반면, 『유대 고대사』에서 요세푸스는 비텔리우스의 후임으로 페트로니우스를 임명하여 로마에서 시리아로 보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sup>24)</sup> 나중에 칼리굴라가 명령을 철회하면서 쓴 편지에서 군대를 해산하고, “처음에” 하달한 일들을 처리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보아, 칼리굴라 상을 세우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다른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페트로니우스는 이미 시리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페트로니우스가 새로운 시리아 총독으로 임명된 사실을 이 대목에서 함께 보도하려고 했던 것 같다.

과견군의 규모에 관련해서는 세 개의 자료 가운데 3개 군단(legion)으로 보도하는 『유대 전쟁사』를 제외하고 『유대 고대사』(18:262)와 필로의 『가이우스에게 간 사절단』(207)은 모두 2개 군단으로 보도한다. 어느 쪽이 정확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점은 세 자료가 모두 매우 커다란 규모의 군대가 출정한 점을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66년 유대-로마 전쟁이 발발할 당시 케스티우스 갈루스 총독이 1개 군단을 출정시킨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이다. 무장 세력을 진압하는 작전도 아닌데 이렇게 큰 규모의 군대를 보낸 것은 앞에서 언급한 당시 팔레스타인 내외에서 발생한 혼란한 상황을 전제로 이해될 수 있다. 2세기 초 타키투스는 이 사건을 두고 유대인이 무장 저항을 했다고 명시하지만,<sup>25)</sup> 아마도 이는 실제로 무장 반란이 일어난 66-70년의 유대-로마 전쟁의 기억을 잘못 투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요세푸스와 필로는 칼리굴라 위기 때의 유대인의 저항을 평화적인 것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리굴라 위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로마 군대의 규모는 심각한 전쟁의 발발을 예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요세푸스가 언급한 ‘전

24)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261.

25) 디오 카시우스, 『역사』, 5.9.2.

쟁의 소문'은 과장이 아닐 것이다.<sup>26)</sup>

### 3.3. 페니키아(프톨레메스)에서 한 협상

필로에 따르면, 페트로니우스가 유대인과 협상을 한 장소는 페니키아 지역뿐이다. 이와 달리 요세푸스는 페니키아(프톨레메스)에서도 협상이 있었다고 묘사한다. 요세푸스의 두 개의 기록 중 역시 『유대 고대사』가 더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으며 헬라 문화의 압박에 직면하여 유대인의 하나님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필로의 『가이우스에게 간 사절단』에서 독특하게 드러나는 점은, 시돈에서 상을 만들었으며(222) 페트로니우스가 유대인 지도자들을 직접 소환하여 칼리굴라의 명령을 통보했고(225f.) 이후에야 칼리굴라의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인파가 페니키아 평원에 집결했다고 하는 점이다(225f.). 그러자 페트로니우스는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어, 계획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왜냐하면 유대 백성이 농토를 황폐하게 만들고 곡물에 불을 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249). 황제는 분노하여 자신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라는 답장을 보냈다(259f.). 또한 이때를 추수기 직전(40년 5월)으로 묘사한다.

### 3.4. 티베리아에서 한 협상

이 협상은 요세푸스만 언급하고 있는데, 티베리아, 즉 갈릴리 지역의 귀족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그립바 1세의 형제인 아리스토틀루스와 또 헬키아스(Helkias the Elder)라는 자가 대화에 나서서 페트로니우스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이때는 40년 겨울 파종 시기로, 유대인들

---

26)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2:187.

이 40일(또는 50일) 동안이나 농사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언급된다. 요세푸스와 필로의 보도를 종합하면, 5월에는 페니키아에서, 10월에는 티베리아에서 협상이 열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최소한 반년 동안 팔레스타인 농촌 지역이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셈이다.<sup>27)</sup> 페트로니우스는 심사숙고 끝에 황제에게 명령 철회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고, 황제는 페트로니우스에게 자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3.5. 로마에서의 아그립바 1세의 역할

필로에 따르면, 칼리굴라가 페트로니우스의 첫 번째 연기 요청에 대한 답신을 보낸 후 아그립바 1세는 로마에 도착했고, 여기서 아그립바 1세는 칼리굴라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된다. 그는 놀라서 기절했고 집으로 실려갔다.<sup>28)</sup> 아그립바 1세는 병석에 누워서 황제에게 명령을 철회해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 로마 황실과 가까운 사이였던 아그립바 1세가 전혀 몰랐다는 점은 좀 의아하다. 아마도 칼리굴라의 계획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여겨졌음을 묘사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29)</sup>

필로는 아그립바 1세가 유대인의 측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묘사한다. 반면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아그립바 1세를 비롯한 헤롯 가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페트로니우스일 뿐이다. 그러나 『유대 고대사』에서 요세푸스의 묘사는 좀 다르다. 아그립바 1세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황제를 초대하고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는 말을 듣는다.<sup>30)</sup> 이에 그는 황제의 상을 세우는 일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27) Gerd Theissen, *Lokalkolorit und Zeitgeschichte*, 157 참조.

28) 필로, 『가이우스에게 간 사절단』, 261ff.

29) Gerd Theissen, *Lokalkolorit und Zeitgeschichte*, 157 참조.

아그립바 자신은 이런 요청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고민했다고 묘사된다. 즉,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요청을 했던 것이다. 황제는 개인적인 욕심 없이, 율법과 신앙심을 중시하는 아그립바의 성품에 탄복하여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귀족층 멤버인 아그립바 1세는 로마 권력과 유대 민중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 또한 그의 형제인 아리스토틀루스와 헤롯 가문의 다른 사람들, 다른 귀족 계층 역시 로마 권력과 유대 민중 사이에 위치한 중재적 인물들로 묘사된다. 전통 문화의 근간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유대 민중은 비타협적인 저항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자 아그립바 1세로 대표되는 유대 귀족층은 유대 민중과 로마 사이에서 협상자의 역할을 떠맡는다. 유대 귀족층은 페트로니우스에게 작전을 일방적으로 수행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해 위기 상황을 무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세푸스 역시 귀족층에 속한 사람으로, 이 중재 과정에서 “유대 백성이 완고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sup>31)</sup>

칼리굴라 위기 보도에서 귀족층의 경제적 관심사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위기로 농촌 지역에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파업 사태가 발생했다. 수많은 농민들이 파종 작업을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농산물 수급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것은 분명했다. 비축된 곡식도 바닥나면, 그 사회적, 경제적 파장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암시한다. 굶주린 자가 늘어나면 강도들이 급증할 것이고, 일반 백성은 세금을 바치기도 어려울 지경이 될 것이다.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유대 귀족들에게 이러한 사태가 유리할 리가 만무하며, 또한 로마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다. 따라서 페트로니우스 총독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2)</sup>

30)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289-297.

31) 게르트 타이젠, 아네테 메르츠, 『역사적 예수』, 손성현 역 (서울: 다산글방, 2001), 826f. 참조. Gerd Theissen and Annette Mertz, *Der historische Jesus. Ein Lehrbu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7).

32) 게르트 타이젠, 아네테 메르츠, 『역사적 예수』, 826f. 참조.

### 3.6. 해결

요세푸스에 따르면 칼리굴라의 명령 철회는 순전히 아그립바 1세의 공로와 페트로니우스의 협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일 뿐, 근본적으로 황제의 의도에는 변함이 없다. 즉, 칼리굴라는 페트로니우스에게 만일 이미 상을 세웠으면 그냥 두고, 아직 세우지 않았으면 이전에 명령한 일들만 수행하라고 했기 때문이다.<sup>33)</sup> 또한 필로는 칼리굴라가 명령을 철회하면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 예식 시행을 강조했다고 밝힌다. 이와 함께 또한 칼리굴라는 로마에서 거대한 상을 만들게 하여 직접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힌다.<sup>34)</sup>

41년 1월 24일 가이우스 칼리굴라가 암살되어 이 위기는 종식된다. 이러한 해결에 대해서 특히 요세푸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며 헬라 문화의 위협에 대한 유대 전통의 승리를 부각시킨다. 하지만 이것으로 위기가 근본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타키투스에 따르면, 이후 총독 펠릭스 치하에서도(52-60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불안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5)</sup> 또한 팔레스타인에서는 아그립바 1세가 사망한 44년 이후 제2의 총독 통치기를 경험하면서 로마와의 갈등을 빚다가 결국 로마에 대항하여 전면적인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 4. 유대 전통의 헬라 문화 극복 1: 로마 총독 페트로니우스 해석

황제가 파견한 페트로니우스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중심적인 등장 인물로 그려진다. 요세푸스는 페트로니우스의 심경 변화를 감동적으로

33)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301.

34) 필로, 『가이우스에게 간 사절단』, 337f.

35) 타키투스, 『연대기』 12.54.1; 디오 카시우스, 『역사』 5.9.2.

묘사한다. 『유대 전쟁사』에 따르면, 유대인과의 몇 차례 협상 이후 페트로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유대인의 입장을 지지한다. “차라리 내가 위험을 감수하겠다. 내가 신의 도움으로 황제를 설득할 수 있다면 너희들과 함께 내 목숨도 구하게 되어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해서 황제의 분노를 산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sup>36)</sup>

『유대 고대사』는 이를 더욱 극적으로 묘사한다.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직후 프톨레메스에서 잠시 머물던 당시, 페트로니우스는 가이우스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시는 아직 유대인들을 만나기 전이었다. 그 편지를 받고 가이우스가 보낸 회신에서 페트로니우스를 칭찬하고 있다는 점은, 당시까지만 해도 그가 가이우스의 생각과 계획을 전면적으로 지지함을 암시한다.<sup>37)</sup> 하지만 몇 차례 유대인들과 협상을 하고, 또 유대인 측의 귀족들과 접촉을 갖고 난 후 페트로니우스의 입장은 완전히 바뀐다. 심지어 그는 “가이우스의 미친 짓(mania)을 수행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sebasmos) 수많은 자들을 죽이는 것은 두려운 일(deinos)”이라고까지 발언한다.<sup>38)</sup> 여기서 가이우스의 태도는 ‘미친 짓’으로 규정되어 그가 제압하려는 유대인들의 거룩한 태도(sebasmos)와 대조된다.

요세푸스의 기록에서(필로의 기록에서도)<sup>39)</sup> 페트로니우스는 “하나님 경외자” 같은 존재로 간주된다. 가이우스 칼리굴라가 헬라 문화를 강압적으로 관철하려는 부정적 모델이라면 페트로니우스는 헬라 문화의 대변자로 출발해서 유대 전통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호해주는 우호적인 모델로 묘사된다. 심지어 그는 유대 문화의 지지자로 변화된다.

36)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2:201.

37)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262.

38)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277.

39) 필로에 따르면, “아마도 그는 어렵듯이 유대인의 철학과 신앙심을 소유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민으로서의 불복종 태도를 직접 부여하셨다(『가이우스에게 간 사절단』, 245).

페트로니우스가 어떤 방식으로 태도를 바꾸게 되는지, 요세푸스의 묘사(특히 『유대 고대사』)는 이질적인 ‘헬라 문화의 강요에 맞선 유대교 문화(율법과 조상의 전통)의 수호와 유지의 주제’로 요약된다. 여기서 페트로니우스는 헬라 문화 강요자에서 유대교 전통의 대변자로 변한다.<sup>40)</sup>

프톨레메스에서 페트로니우스를 찾아가 첫 대면한 유대인들은 그와 논쟁을 벌인다. 여기서 페트로니우스를 향한 유대인들의 첫 발언은, “어떻게 해서든지(pantōs) 상을 가져가서 세우려면 우리를 죽이라”는 것이다.<sup>41)</sup> 이는 헬라 문화의 강제성을 암시하는 묘사로, 헬라 문화가 유대 전통을 위협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헬라 문화의 위협적인 특징이 ‘상’(이는 인간의 형상임을 뚜렷이 드러내는 andrias로 표현된다)이라는 개념에 압축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분(하나님이나 모세)과 조상이 전해준 것을 ‘덕’(aretē)으로 규정하여, 유대인의 전통이 헬라의 지성적 개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다.<sup>42)</sup>

이어지는 페트로니우스의 발언은, 로마 황제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황제의 말’에 대립된 개념으로 제시하며, 자신들은 율법과 조상 대대로 전해 온 전통을 목숨과 같이 준수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가이우스보다 더 위대하다(beltion!)”고 고백한다. 율법을 위반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유대인들의 완강한 태도는 이 본문에서 수차례 반복된다.<sup>43)</sup>

페트로니우스는 결국 설득되어 이방인인 유대 백성을 대신해서 죽

40)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그가 뇌물을 받아 매수된 것으로 여겼다(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304).

41)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264.

42)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265.

43)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266ff.

음도 각오한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sup>44)</sup> 유대인을 향한 페트로니우스의 연설은 거의 유대 신앙을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임을 보여준다.<sup>45)</sup> 여기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인 도구보다, 인간적인 힘보다 우월하다고(beltiōn) 역설한다.<sup>46)</sup>

연설 직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1년 이상 가뭄이 지속되고 있었는데<sup>47)</sup> 마른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린 것이다. 이 장면에서 페트로니우스는 하나님의 현존하심(epiphaneia)을 목격하고, 가이우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 놀라운 사건을 함께 알린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묘사로 페트로니우스는 유대 신앙을 받아들인 “하나님 경외자”의 수준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황제가 자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실을 두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페트로니우스에게 진 빛을 갠시켰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한 결과라고 해석한다.<sup>48)</sup>

요세푸스는 죽음도 무릅쓰고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한 페트로니우스를 헬라 문화의 극단적 강요에 대한 로마 내부적 비판의 한 예로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불복종의 동기야 다르지만 요세푸스는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멤미우스 레굴루스(Memmius Rehulus) 역시 비슷하게 평가한다. 칼리굴라는 헬라 지역을 약탈하여 로마를 장식하고자 올림피아에 있는 유명한 상인 피디아의 제우스 상을 로마로 운송해오라고 명령했다. 이때 레굴루스 총독은 제우스 상이 운반 도중에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한 불길한 징조들(sēmeia)을 이유로 황제의 명령을 거부한다. 요세푸스는 레굴루스 역시 죽음을 당할 수 있었지만 칼리굴라가 암살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언급한다.<sup>49)</sup>

44)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278.

45)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279-283.

46)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281.

47)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284-288.

48)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305-309.

## 5. 유대 전통의 헬라 문화 극복 2: 로마 황제 칼리굴라 해석

40년경 유대 사회를 심각한 공포에 몰아넣었던 칼리굴라는 유대 사회를 헬라 문화 속에 강제로 편입시키려 했던 시도를 보여준다. 그는 악행과 난폭성으로 유대인 백성에게만 적대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내부 상류층(원로원과 기사 계급)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sup>50)</sup> 그의 암살은 이러한 상류층과의 불화 속에서 계획되었다. 칼리굴라의 죽음 장면을 보도하는 가운데, 요세푸스는 그의 죽음이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했던 여러 시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공연에 참석했다가 살해되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극장 안에 있던 제물 하나가 떨어지면서 핏방울이 아스프레나스(Asprenas)라는 원로원 멤버에게 튀었는데 요세푸스는 이를 칼리굴라의 죽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oĩnos)로 보았다.<sup>51)</sup> 공연이 진행되는 중에도 두 개의 불길한 징조(semcia)가 나타났고<sup>52)</sup> 이러한 범상치 않은 전조들이 벌어진 후 칼리굴라는 살해되었다.

『유대 전쟁사』에서 요세푸스는 그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그는 신으로 여겨지기를 원했으며, 자신을 그렇게 부르라고 지시했다. 가이우스는 최고 실력자들마저 제압했으며<sup>53)</sup> 마침내 그의 **신성 모독 정책(asebeia)**은 유대 지역까지 미쳤다. ……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명령이 실현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sup>54)</sup>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신성 모독(asebeia), 권력자 신격화(apotheosis)의 주제는 철저히 부정된다. 헬라 문화의 유입이 불가피하다 해도 적어도 유대 신앙의 제1원리인 유일신 신앙에 위배되는 사건과 행위는 단호하게 거부된다.<sup>55)</sup>

49)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9:8-10.

50)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9:1-3.

51)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9:88.

52)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9:94.

53) 앞서 언급한 대로 칼리굴라와 상류층과의 갈등이 이 표현에 함축되어 있다.

54)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2:184f.

41년 유대 왕(basileus)으로 임명되어 1차 총독 통치 기간을 종식시킨 아그립바 1세는 44년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데, 이 장면 묘사도 요세푸스의 이러한 주제를 잘 보여준다.<sup>56)</sup>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은 아그립바 1세를 ‘신’(theos)이라고 부르며 그를 칭송했는데 유대인으로서 그런 신격화의 발언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작스런 죽음의 징벌을 받는다. 칼리굴라 위기 당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묘사된 아그립바 1세가 이렇게 죽음을 당한 일화를 통해, 요세푸스는 유대 신앙의 제1원리 위반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은 예외가 없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칼리굴라 위기에 직면한 유대인들의 저항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회 내부 구조의 상수(常數)적 긴장을 인식할 수 있다. 즉, 유대교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유일신 야웨를 섬기는 배타적 신앙과 헬레니즘 문화 사이의 갈등을 볼 수 있다. 야웨는 다른 신을 허용하지 않으며,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대교 문화의 기본 원칙이다. 신과 인간과 짐승을 형상화하여 종교적 매개로 삼는 것을 철저히 배격했던 유대 문화 전통에 의하며 그 어떠한 극단적 제재도 감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율법에만 절대적인 순종을 바쳐야 한다는 전통과 국가 권력, 제국의 지배자를 신격화하는 현상은 필연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sup>57)</sup> 유대인들이 보여준 저항의 방식은 비폭력 반대였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형상이 그려진 깃발을 예루살렘에 몰래 들여왔을 때에도 비폭력 저항으로 유대 신앙의 원칙을 옹변할 수 있었고 성공했다.<sup>58)</sup>

55) 필로도 자기를 신격화한 칼리굴라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하는 게 쉽겠다.”(『가이우스에게 간 사절단』, 118). 게르트 타이젠, 『기독교의 탄생: 예수운동에서 종교로』, 박찬웅, 민경식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313에 따르면 이러한 필로의 태도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원시 기독교 사상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Gerd Theissen, *Die Religion der ersten Christen: Eine Theorie des Urchristentums* (Gütersloh: Verlagshaus, 2000)].

56)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9:343-352; 사도행전 12:21-22 참조.

57) 게르트 타이젠, 아네테 메르츠, 『역사적 예수』, 826f 참조.

## 6. 결론

위에서 논의된 위기의 상황은 단순히 칼리굴라 개인의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 수세기 동안 유대 사회를 끊임없이 위협한 헬라 문화의 주장이 한 사건으로 구체화된 결과였다. 유대인들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성공은 한시적인 것이었다. 문화의 충돌이라는 주제를 내세워 또 다시 새로운 형태의 위기는 발생하기 마련이고, 요세푸스가 자신의 방대한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 주제는 유대-로마 전쟁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었다.

요세푸스는 양면성의 해석을 취한다. 한편으로는 헬라 문화의 도전에 직면하여 유연한 태도를 취하지만, 그 문화가 유대 신앙의 제1원리와 충돌할 때에는 완고한 입장을 취한다. 로마 권력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원래 칼리굴라와 페트로니우스는 한 통속의 인물들이지만 유대 신앙의 핵심을 존중하는가 무시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들에 대한 평가는 확연하게 갈린다. 이 연구로 우리는 요세푸스는 열세의 자기 문화가 강세의 외래 문화와 마주치는 격렬한 변동 상황에서 어떤 확고한 원칙으로 그 격렬한 현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한 역사가라고 볼 수 있다.

### <주제어>

문화, 칼리굴라, 유일신 신앙, 유대-로마 전쟁, 율법, 상, 헤롯 아그립마 1세

### <Key words>

Culture, Caligula, monotheism, war, the Law, stature, Herod Agrippa I

\* 접수일 2009년 8월 26일, 수정일 2009년 8월 29일, 게재 확정일 2009년 9월 9일

58)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2:169-174.

### 참고문헌

- 게르트 타이센, 『기독교의 탄생: 예수운동에서 종교로』, 박찬웅, 민경식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Gerd Theissen, *Die Religion der ersten Christen: Eine Theorie des Urchristentums*, Gütersloh: Verlagshaus 2000.
- 게르트 타이센/아네테 메르츠, 『역사적 예수』, 손성현 역, 서울: 다산글방, 2001; Gerd Theissen/Annete Mertz, *Der historische Jesus. Ein Lehrbuch*, Göttingen: Vanderhoeck & Ruprecht, 1997.
-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I-II,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226/227, 박정수, 박찬웅 공역, 서울: 나남, 2008.
- Bilde, Per, *Josefus som historieskriver*, Kopenhagen: G. E. C. Gad, 1983.
- Hengel, M., “Zeloten und Sikarier. Zur Frage nach der Einheit und Vielfalt der jüdischen Befreiungsbewegung 6-74 nach Christus,” O. Betz, et al., eds., *Josephus Studien. Untersuchungen zu Josephus, dem antiken Judentum und dem Neuen Testament. Festschrift für O. Miche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4.
- Hengel, M., *Judentum und Hellenismus. Studien zu ihrer Begegn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Palästinas bis zur Mitte des 2. Jh.s v. Chr.*, WUNT 10, Tübingen: Mohr Siebeck, <sup>1</sup>1969, <sup>3</sup>1988.
- Keim, T., *Aus dem Urchristentum I*, Zürich: Mohr Siebeck, 1978.
- Smallwood, E. M., ed., *Philonis Alexandrini: Legatio ad Gaium*, Leiden: E. J. Brill, 1961.
- Theissen, Gerd, *Lokalkolorit und Zeitgeschichte in den Evangelien: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NTOA 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초록>

##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 전통의 충돌

-요세푸스의 칼리굴라 위기 보도를 중심으로-

박찬웅

(하이델베르그대학교 박사, 신약학)

40년경에 발생한 칼리굴라 위기는 70년 성전 멸망을 예견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유대 전통이 로마가 표방하는 헬라 문화에 의해 언제든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닫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 경험으로 요세푸스는 거대한 주도적 문화의 확장은 불가피했으며 주도적 문화(헬레니즘)와 지역적 문화(유대교)의 충돌 또한 불가피한 현상인 것을 알았다. 본 연구는 헬라화의 과정, 즉 문화적 조우의 필연적 귀결로 ‘칼리굴라 위기’를 이해하고자 한다. 칼리굴라 위기는 단순히 칼리굴라 개인의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 수세기 동안 유대 사회를 끊임없이 위협한 헬라 문화의 주장이 한 사건으로 구체화된 결과였다.

요세푸스는 양면성의 해석을 취한다. 한편으로는 헬라 문화의 도전에 직면하여 유연한 태도를 취하지만, 그 문화가 유대 신앙의 제1원리와 충돌할 때에는 완고한 입장을 취한다. 로마 권력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원래 칼리굴라와 페트로니우스는 한 통속의 인물들이지만 유대 신앙의 핵심을 존중하는가 무시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들에 대한 평가는 확연하게 갈린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요세푸스는 열세의 자기 문화가 강세의 외래 문화와 마주치는 격렬한 변동 상황에서 어떤 확고한 원칙을 통해 그 격렬한 현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한 역사가라고 볼 수 있다.

<Abstract>

## Conflict between the Hellenistic and Jewish Culture: The Caligula Crisis in Josephus

Dr. theol. Chan-Woong Park  
(Heidelberg Univ.)

The Caligula Crisis in 40 was a sign of the Jewish-Roman War in 70.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Caligula Crisis, the Jewish people learned that their own culture and tradition could be threatened by the Roman power. That is, the Romans can threaten the Jewish tradition, if he wants to expand his culture. This study doesn't understand the Caligula Crisis as an accident, but as a necessity. And the Caligula Crisis was a result of the encounter between the Hellenistic and the Jewish culture since the Alexander the Great.

Josephus interprets this crisis in two ways. In principal, he admits the meeting of two cultures positively. But if the Hellenistic culture violates the traditional Jewish culture, first of all, the faith of monotheism, he criticizes it very hardly.